

취임 두 달 김윤덕 국토부장관 “건설경기 · 민생경제 활성화 주력”

“지방 건설경기 심각성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 중장기적인 대책 필요, 지방 SOC 뉴딜 활성화”
부동산 대책에 “강력한 의지 갖고 대처… 세제 문제에 거론하는건 맞지 않으나 필요하다면 해야”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취임한지 두달여만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설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국내 건설경기 불황에 대해 “지방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의 핵심은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심각한 수준에 봉착하고 있으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을 강하게 하게 됐다”며 “기존 3000호 매입을 8000호로 늘렸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추가대책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장관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5국 3축,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서울에 10개 만들기 등 균형발전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SOC 뉴딜사업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면 지방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이번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대처할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취임한지 두달여만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거론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추가 대책에 대해선 국토부 차원에서 지금 필요하다

아니다 말하는 건 빠르지만,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면 해야 된다”며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 문제가 국민에 끼

치는 영향은 너무 크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양질의 집을 지어 국민들이 좋은 집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권희성 기자

“윤석열 정권 의료대란 여파, 전북 의료 취약성 심화”

민주 박희승 의원 “공공의료 기반 구축 시급”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취약성이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전북 지역민의 건강 안전망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공의 복귀 및 확보를 위한 수차례의 특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는 전국적으로 모집인원 대비 선발률이 59.1%에 그쳤으며, 지역별 편차가 커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역별 전공의 선발률을 살펴보면, 세종이 16.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전남(22.2%), 경북(31.2%) 등 비수도권 지역은 평균을 훨씬 밑도는 심각한 상황을 보였다.

전북 지역 역시 모집인원 441명 중 242명이 선발되어 선발률은 54.9%를 기록, 전국 평균(59.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대표되는 인기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은 필수 의료 공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93.5%), 안과(91.9%), 성형외과(89.4%) 등은 높은 선발률을 보인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전국적으로 13.4%, 병리과는 17.9%로 극심한 기피 현상을 보였다.

이 중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은 재앙 수준이다. 필수 의료의 핵심인 소아청소년과 선발률은 비수도권에서 8.0%에 불과했으며, 심장혈관흉부외과(4.9%), 핵의학과(3.4%) 순으로 지역 필수 의료의 공백이 심각하게 나타나, 전북 지역민들이 필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보건의사(공보의) 감소 문제도 심각하다. 공보의 수는 2016년 3,493명에서 올해 2,551명으로 10년 만에 27%나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 의정 갈등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 신규 공보의는 전년 대비 36% 급감한 708명에 불과했으며, 올해는 738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전북 지역의 공보의 현황 역시 심각하다. 2016년 374명이었던 전북 공보의 수는 2025년 현재 253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공보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보건지소 1,273개소 중 17.3%에 달하는 220개소에는 공보의가 아예 배치되지 못했다. 이는 도서벽지가 많은 전북 지역의 보건지소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문제다.

박희승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관 기반 자체가 OECD 평균에 비해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 병상수 비율은 9.4%에 불과하다. 인구 백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개소수 역시 4.25개소로, OECD 평균인 13.9개소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박희승 의원은 이 같은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이 흔들리려 무너졌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면빛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16.4조 투자 유치, 수변도시 첫 분양’

새만금청 · 공사, ‘2025 집코노미 박람회’ 서 공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B홀)에서 개최하는 ‘2025 집코노미 박람회’에 참가한다.

양 기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성과와 새만금의 첫 도시인 수변도시의 분양 계획을 홍보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홍보관을 운영하여 개청 이후 누적 16.4조원의 투자를 유치한 성과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 인센티브 홍보, 관심 기업 상담 등 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수변도시를 첨단산업과 연계한 기업 지원형 도시로 조성 중이며, ‘첫 분양’을 앞두고 근생용지·단독주택용지공급 계획과 분양 일정 등 맞춤형 상담과 이벤트에 나선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2023년 6월)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023년

(근생)과 추첨방식(단독주택)을 병행해 분양할 계획이다.

이번 분양은 새만금 내 최초 도시형 정주공간 공급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정착 기반 조성과 함께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주목 받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이번 박람회는 새만금의 비전과 투자 환경을 국내외 기업, 투자자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새만금에 RE100 산단 기반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자 세계 수준의 친환경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수변도시는 산업과 정주, 향만 배후 기능이 어우러진 도시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용지 등 단계별 분양을 앞두고 있다.”며, “새만금 수변도시가 기업 활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혁신적인 도시이자 기업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농어업 보호 통상조약 피해보호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달 30일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조약의 농수산업 피해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농어업이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입어 왔지만, 국회 농해수위에는 보고 의무가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통상조약 수립 시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 부처 의견 수렴 의무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아니라 농해수위에도 계획 보고 △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과 피해 지원 대책 검토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이만호 기자

중앙정치 무대에서 전북 인재들 ‘두각’

전북발전연합회 임원 4명, 민주 정책위 부의장 발탁



윤화숙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회장 최한양) 소속 임원 4명이 더불어민주당 정책 위원회 부의장에 동시에 임명돼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인선은 전북 인재들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인정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책위 부의장은 당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핵심 직책으로 현역 국회의원들도 선호하는 자리로 이번 발탁된 4명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 받아왔다.

여성회장인 윤화숙 군장대 교수는 오랫동안 교육계와 여성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 여성 리더 양성과 학문적 성취를 이끌어온 인물이다.

사무총장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북과 중앙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익산시청 출마에 뜻을 두고 있다.

또한 사무국장 이광영 위브 어울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 공동



심보균

채 강화에 앞장서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써 왔다.

정수균 여성회장 오미은 민주당 여성부위원장 은 여성 정치 참여 확대와 청년·여성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며 군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들의 임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중앙 정치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전북발전연합회의 활동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전북발전연합회는 전주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에 책임자를 두고 순수 자원봉사 정신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그간 정책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과 전주 삼천 천년 평화 활동, 시군 방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최한양 회장은 “연합회 임원들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중책을 맡게 된 것은 전북을 대표하는 큰 성과이자 자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건설현장 안전 · 노동 문제 해결 적극 나설 것”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건협과 정책간담회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오전 11시, 서울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및 임원진 20여 명과 함께 안전·노동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한승규 회장, 회원사 부회장, 시도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건설업계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건설업계가 직면한 안전과 노동 관련 현안을 직접 청취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점검했다. 안 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어려움과 고충에 깊이 공감한다”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사고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가 가장 크게 입지만, 기업 역시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와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절을 앞두고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하고, 노동자 권리 보장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대한건설협회가 △사망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과징금 기준 합리화 및 중북 부과 개선 △노란봉투법 후속지침에 건설업 특수성 반영 △청년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중대재해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제92호 발간

제420회 ·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 전반 수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지난달 30일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5 가을호(제9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열린 제420회·제421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실렸다.

특히 각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의 생생한 현장 활동과 함께 분야별 도정질문과맞춤형 조례 제정은 도민을 위한 민생의회로서의 역할과 의지를 담았다.

이번 호에서 정리된 제·개정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8건이며, 건의·결의문의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 등 38건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지역 문화 예술인 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제도 개선과 농·축산업 현실을 고려한 한우산업 구조적 불균형 대책 필요, 낮은 인지도로 지원 제도가 미미한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등을 다뤘다. 관련 내용은 QR 코드로 연동해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툰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제로 전북 진안 출신의 1세대 인권 변호사인 한승헌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북 교육 현장에 알리기 위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만화로 만들었다.

포토세이는 가을 단풍으로 붉게 물들 ‘정읍 내장산’을 담았고, 특별기고는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콘텐츠를 계기로, K-컬처의 뿌리인 전북의 존재감과 위상을 짚어냈다.

/이만호 기자